

2019년 희곡우체통 3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별을 위하여>

지난 2월, 희곡우체통은 우리 시대의 풍속도를 박진감 있게 그려낸 <오보>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낭독할 작품은 결이 전혀 다른 작품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을 소재로 삼은 <별을 위하여>입니다. 미투 열풍, 버닝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가부장주의에 억압되고 비틀린 ‘성’과 ‘여성’은 우리 시대의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깥 쪽, 그 가부장적 정상성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부터 제일 바깥으로 밀려난 여성 발달 장애인의 ‘성’은 어떨까요?

<별을 위하여>는 그것을 다루되 크지 않은 목소리로, 사회적 관점 보다는 미시적인 가족사를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망, 그러나 그런 발달장애인의 성이 왜곡되는 사회적 폭력과 편견, 그 충동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잔잔한 일상 속에 그려집니다. 너무 잔잔해서 연극성의 결핍이 우려되는 지점도 있지만, 자극적인 표현이나 큰 목소리가 대세인 시대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의 복잡함과 막막함, 그것을 고독하게 감내하는 개인의 삶을 과장 없이 응시하는 작품은 분명 눈여겨볼 미덕이 있습니다.

2019년 희곡우체통 3차 낭독회로 저녁 나들이 오십시오.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어느 정도 구현될 수 있을지, 낭독회를 매개로 그 가능성과 문제점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이제 한 돌이 된 2019년의 희곡우체통은 지난해에 벌린 판을 다지면서 더 넓고 단단해지겠습니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